

“마지막 아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뚝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적생 정조국



광주FC
태극 캠프를 가다

축구 선수 정조국에게 FC 서울은 첫사랑이었다.

많이 사랑했고, 마지막 사랑이기를 바랬다. 서울을 대표하던 정조국이 광주 FC로 왔다. 이별의 아픔을 뒤로한 그는 또 다른 사랑을 시작했다.

한 번도 서울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그가 광주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점점 좁아져 가던 자리, 그라운드에 대한 애뜻함으로 고민하던 그에게는 아들의 한마디가 뼈아팠다.

정조국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아빠는 왜 경기 안 뛰느냐고 물어봤다. 친구들과 자랑하고 싶고 할 것인데 프로 세계에 대해 모를 테니까 그 말이 참 마음 아팠다. 변화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다”며 “광주여서가 아니라 서울을 떠난다는 현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하지만 더 많은 걸 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다. 자신감은 있다. 내 선택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려운 결정을 한 그에게 광주는 어떤 사람이 될까? 정조국은 광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조국은 “내가 광주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표현이다. 내가 광주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힘든 시기에 남기일 감독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 날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축구선수로서 환혼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정조국. 광주가 그의 마지막 사랑일까? 마지막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다.

정조국은 “축구를 해왔던 날보다 할 날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이다. 마지막 각오로 뚝다는 것은 프로 선수답지 않은 말인 것 같다. 베테랑의 경험을 살려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뚝다”며 “후배들이 특별한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같은 프로선수로써 공을 더 오래 찾고, K리그에 많이 있었다는 것일 뿐이다. 내가 먼저 다가갈 것이고 후배들도 스텝없이 다가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남기일 감독님은 부드러운데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시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신다. 귀를 열어주셔서 자연스럽게 의견도 말씀드린다. 광주라는 팀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에는 감독님의 철학과 팀 문화가 있었던 것 같다”며 “수비적인 부분도 원하시는데 100%, 120% 감독님의 말씀에 수용하고 보답을 하기 위해 열심히 뚝다”고 밝혔다.

아들에 자랑스런 아빠 되고파 힘들 때 손 내민 광주에 감사 특별한 선수보다 좋은 선수로 후배들과 그라운드 누빌 것

광주의 색을 ‘착함’이라고 표현한 이적생 정조국. 그라운드에서만큼은 선수들이 더 강한 모습으로 뛰기를 바라고 있다. 후배들과 거침없이 그라운드를 누비고 싶은 그의 목표는 없다. 하지만 변화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좋은 선수”로 남고 싶다.

정조국은 “지금 목표는 없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지금은 좋았을 때의 몸컨디션 만드는 게 중요하다. 1년을 버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며 “예전에는 멋스럽게 후배들의 동경의 대상, 롤모델이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이었다. 좋은 선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은퇴를 하고 싶다”고 웃었다.

끝을 알 수 없는 출발선에 선 정조국. 그러나 이것 하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정조국은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주시고, 광주 FC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멋진 골 세리머니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인터뷰를 끝냈다.

/방콕=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의 정조국이 전지훈련 캠프가 마련된 태극 방콕 무양동 유나이티드 경기장에서 가벼운 러닝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새로 룸메이트를 구성한 광주 FC의 ‘터줏대감’ 여름(MF)과 ‘이적생’ 조성준(MF)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새 콤비 찾아 한밤의 방 바꾸기

남기일 감독 “끈끈한 팀워크 만들기 위해”

한밤의 이사로 광주 FC 선수단 숙소가 소란스러웠다.

지난 27일 광주 선수들은 오전 훈련을 소화한 뒤 자유를 얻었다. 방콕 시내로 나가 모처럼 여유를 만끽한 선수들의 마지막 일과는 ‘이사’였다. 새로 배정된 방에 맞춰 이리저리 짐을 옮기는 선수들로 시끌시끌했던 밤. 더 세밀하게 광주의 2016시즌을 그리는 과정이었다.

지난 20일 태극 방콕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 광주는 고참과 신인, 기존 선수와 이적생, 같은 포지션을 큰 틀로 해서 룸메이트를 구성했다. 1주일의 시간 같은 공간에서 손발을 맞췄던 지난 룸메이트들은 남기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콤비를 구성하게 됐다.

남 감독은 팀의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자 시도라고 이야기한다.

남 감독은 “선수들끼리 방에서 축구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진다. 포지션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도 했는데 다른 포지션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을 섞기도 했

다. 친한 선수들끼리만 친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작은 팀 광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팀워크다. 얇은 스쿼드라는 한계 속에서도 광주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만의 끈끈한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 시즌 광주는 베스트 11을 구성했던 주축 선수들이 군입대와 이적으로 대거 팀을 떠나면서 새로운 틀을 짜고 있다. 이적생과 신인 선수들이 팀의 새로운 축이 되면서 ‘간절함’이 열여섯 것은 사실이다. 2부리그에서 눈물 섞인 시간을 보내고, 승격의 감격을 누렸던 이들로 시작했던 지난 해와는 조금 다른 출발이다. 광주의 끈끈함을 다시 만들기 위해 사령탑은 세밀한 구상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일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고 있는 광주. 2016시즌의 또 다른 도전을 위해 그라운드 밖 속소에서도 광주의 팀워크가 맞춰져 가고 있다.

/방콕=김여울기자 wool@



문창진

황희찬 없어도...창·창한 미래

한국 축구의 차세대 원발 듀오로 꼽히는 권창훈(수원)과 문창진(포항)이 올림픽대표팀 막내 황희찬(잘츠부르크)의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일본과의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결승전의 최대 변수는 ‘무서운 막내’ 황희찬의 공백이다.

저돌적인 돌파력을 앞세워 한국 올림픽 대표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격자원으로 자리매김한 황희찬은 결승전을 앞두고 소속팀 잘츠부르크로 복귀했다.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데 꼭 필요한 공격수로 꼽히는 황희찬의 공백은 한국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그러나 공격축구를 추구하는 신태용호는 황희찬이 없을 때도 충분한 파괴력

권창훈·문창진 나란히 4골...신태용호 공격력 ‘이상無’

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2선 공격수인 권창훈과 문창진이다.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경쟁하듯 골을 넣으면서 한국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먼저 빛난 것은 문창진이었다. 문창진은 조별리그 1차전인 우즈베키스탄전에서 2골을 터트리며 2-1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차 넣은 뒤 후반전엔 오른쪽 슈팅을 성공시켰다.

권창훈은 조별리그 2차전인 예멘과의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영웅이 됐다. 권창훈은 2개의 오른쪽 슈팅과 헤딩으로 세 골을 몰아넣었다. 그러자 문

창진은 요르단과의 8강전에서 다시 오른쪽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이끌었다.

팀내에서 각각 3골로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던 두 선수는 카타르와의 4강전에서도 나란히 골을 터트리면서 경쟁구도를 이어갔다. 두 선수가 터뜨린 골은 팀의 승리를 만든 결정적인 골이었다.

권창훈은 1-1로 맞선 후반 44분 이슬찬의 크로스를 왼발로 방향을 바꿔 결승골을 쏘았다.

문창진은 후반 추가시간 황희찬의 패스를 받아 수비수를 한 명 제치고 나서 왼발로 낮은 슈팅을 날려 3-1 스코어를

완성했다.

원발잡이인 두 선수는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각각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왼발 슈팅을 성공시켰다.

2선 공격수이자 원발잡이인 두 선수의 경쟁구도는 올림픽 대표팀의 파괴력을 증대시키는데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태용 감독도 “황희찬이 없어서 불리한 상황이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사기가 충천하기 때문에 어느 팀과 붙어도 자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최강 자리에 도전하는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 결과는 차세대 원발 듀오인 권창훈과 문창진의 활약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권창훈

이 웃음 그라운드에서 못 본다... KIA 서재응 은퇴

“나이스 가이”가 그라운드를 떠난다. KIA 투수 서재응이 28일 은퇴를 결정했다.

서재응은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는 말로 28일 그라운드의 작별을 고했다.

KIA는 서재응의 의견을 존중해 은퇴 의사를 수용했으며, 코치 등 현장 복귀를 원한다면 코칭스태프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김기태 감독도 “서재응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현장에 복귀 의사가 있다면 합



식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서재응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재응은 1998년 뉴욕 메츠에 입단해 메이저리그에서 6시즌 동안 활약하며 118경기에 등판, 28승 40패 평균자책점 4.60을 기록했다. 후배 김병현·최희섭과 “광주일고 빅리거 3인방”으로 명성을 날렸던 그는 이후 2008년 KIA에 입단해 8시즌을 뛰며 164경기에서 42승 48패 4홀드 2세이브 평균자책점 4.30을 기록했다. 특히 2012시즌에는 44이닝 동안 단 한 명의 주자에게도 홈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연속 선발등판 무실점(6경기 선발 등판, 2경기 완봉승)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 핸드볼협회 학생선수단 격려

농성초, 동림초, 효동초, 조대부중, 조대여중, 조대부고, 조대여고, 조선대 등 8개팀이 있다.

광주시 핸드볼협회(회장·김영배) 관계자들이 28일 동계훈련중인 조대여고 체육관을 찾아 격려금을 지급하고 선수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에는 /나명주기자 mjna@